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하세요”

목포시, 13개 사업 총 사업비 16억 원 투입

내달 2일부터 접수...중위소득 140% 이하

목포시가 3월 2일부터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올해 서비스제공 대상사업은 아동·청소년 분야 6개, 장애인 분야 3개, 노인 분야 4개 등 1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원이 투입된다.

아동·청소년 서비스는 △심리지원서비스 △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드림터치 서비스 △소외가정 통합사례관리서비스 △남도문화예술통합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등이다. 장애인 서비스는 △안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재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등이며, 노인 서비스는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건강100세 운동힐링서비스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 등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사업별 상이) 가구이며 사업별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시는 모집인원을 초과 할 경우 일정비율 인원을 대기자로 선정해 서비스가 적시에 지원

되는데 차질 없이 대비 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등 사업별 증빙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사회복지과(270-3316)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군 함평읍 복지기동대, 취약 계층에 주거환경 개선활동 펼쳐

함평군 함평읍 복지기동대는 지난 21일 지역취약계층 대상가구를 찾아 화장실(욕실) 전용 전기수기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집안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순관 읍장을 비롯한 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과 복지기동대원 5명이 참여했으며 올 한해 각 분야(집수리·도배·가스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기동대



를 통해 지역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여수선관위, 어르신·장애인 단체와 업무협약

선거참여 사각지대 해소 위한 맞춤형 선거서비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 등 투표참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르신·장애인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4일 업무협약 회의를 개최하고, 24일 업무협약 체결을 실시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 복지시설 등 선거참여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정보와 투표편의 등 맞춤형 선거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각

단체 방문 선거정보 제공·안내 ▲거동불편 선거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지원 ▲수어통역사(사전)투표사무원 배치 ▲모의 체험투표소 설치·운영 ▲투표안내 리플릿 등 투표안내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수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참여 사각지대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하였다.

함평군 소재 나비마트, 두유 1년간 무상지원

매달 10박스 지원키로

함평군 함평읍에 소재한 나비마트(대표 전병열)가 지난 21일 손불면사무소(면장 지영일)를 찾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며 두유 10박스를 전달했다. 손불면이 고향인 전 대표는 독거노인 등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취약계층에 매달 10박스의 두유를 1년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장흥군, 이랜드재단과 위기가구 지원

장흥군은 지난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재단법인 이랜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재철)과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대상자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장흥군민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립의 의지를 갖도록 하는 데 이랜드재단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장흥군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해 주기 위해 멀리서 찾아와 주신 (재)이랜드재단에 감사드린다. 군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랜드재단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위기가정의 자립, 자활을 돕게 된다. 장흥=위지훈 기자

광주 남구 치매안심센터, 노대동서 서비스 돌입

광주 남구 치매안심센터가 노대동 송화마을 4단지 인근에 새 보급자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남구는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추진함에 따라 치매 관련 통합 관리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대동에 지상 2층 규모로 남구 치매안심센터를 신축, 24일부터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연 남구 치매안심센터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장을 비롯해 상담실, 검진실, 쉼터, 가족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백운광장 인근 광남목재 빌딩에서 노대동으로 이전·개소함에 따라 그동안 공간 협소 문제로 치매 관련 전문 상담이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따랐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